

대나무와 지조

소상반죽(瀟湘斑竹)이란 고어가 있다. 오나라의 여순(虞舜)이 창오야(蒼梧野)싸움에서 전사하자 그의 아내가 소상강 강가에 이르러 애통해하다가 순절했는데, 그때 흘린 그 피눈물이 강가의 대나무에 떨어져 소상강 대나무엔 아롱무늬가 생겼다고 한다. 부녀들의 서리같은 절개를 표현할 때 흔히 쓰는 고사다. 이런 대나무를 두고 서견(徐甄)이란 옛 시인은 「암반(岩畔)설중고죽(雪中孤竹) 반갑고 반가워라/ 물노니 고죽아 고죽군(孤竹君)이 네였더냐/ 수양산 만고청봉에 이제(夷齊)를 본 듯 하여라」라 하고 노래했다. 눈 속 바위등결에 곳곳하게 서 있는 대나무를 두고 백이·숙제며 그 아버지 고죽군을 본 듯하다는 시다. 때문에 고산 운선도 같은 대가도 그의 유명한 「오우가」에서 「저렁고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고 대나무의 늘 푸른 지조를 노래했다. 사군자에 대나무가 오르는 것도 그 단단한 매디(節)며 곧은 기상 때문이다. 대는 생태학적으로 볼때 우선 뿌리를 튼튼하게 다진다. 때문에 거친 바람에 견디는 방풍림으로 대나무 숲이 쓰이는 것이다. 얼마나 잔뿌리를 튼튼하게 뻗는지. 그 작업이 끝난 뒤엔 「우후죽순」이란 말이 생겨날 정도이다. 대는 절대로 헤프지가 않다. 대의 수명은 보통 150년 가량이며, 꽃은 대개 60년만에 5~7월 사이에 한번 피운다. 마디가 있고 굽힐 줄 모르는 대는 이렇듯 그 삶의 절정기라 할 시기에 한번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그 많은 참음과 기다림과 소망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또 오랜 그 인고 뒤 이삭 위에 한데 뭉친 작은 꽃들을 피우되 대나무는 적당한 주기를 두고 꽃을 피우지, 한번에 일제히 꽃을 피우지는 않는다. 만일

일제히 꽃을 피웠다가 꽃이 지면 대나무는 스스로 목숨을 잃을 만큼 온 심혈을 기울인 「꽃이삭」을 피우는 것이다. 일생에 한번 주어지는 기회를 위해 하루하루를 갈고 닦다가 마침내 그 기회가 오면 자기 목숨을 불태울만큼 모든 것을 다 바친 꽃을 피우고야 마는 대나무다. 우리들 생애에서도 바로 이런 꽃을 피우야 되는게 아닐까...

대는 끝까지 헌신한다. 마디가 싹트면 한복철의 나물로, 또 고급음식의 소재로도 쓰인다. 바로 죽순이다. 알맞게 자라면 것대(筍)로 붓대·뉘시대로 쓰이고, 우리일상생활에서 대바구니·삿갓·목침으로 세죽공예의 자재가 된다. 근래에 와서는 의자며·응접용탁자로 운치를 더하고 있다. 늙어 못쓰는 대는 노재(老材)라고 해서 담장이나 서까래 장대로 활용되니 완상·방풍림의 일생은 말할 것 없고 대나무 자신 어릴 때부터 그 성장·노년에 이르기까지 줄곧 헌신ियो 봉사다.

옛 사기(史記)에 보면 황제가 영륜(伶倫)을 시켜 곤계(昆谿)란 곳에서 대를 베어다가 피리를 만들어 불었더니 봉황의 울음소리가 났다고 한다. 어느 금속 피리에서 상상속의 봉황울음을 듣겠는가.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누라서 굽다던고/ 굽을 절개면 눈속에 푸를소냐/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따뜻한 봄날과 뜨거운 여름·가을을 다 보내고 찬 겨울에 더욱 그 푸르름을 더해 가는 대나무. 대의 생애는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기 쉬운 우리에게 하많은 얘기를 남기고 있는 듯하다. 혈죽(血竹), 충신은 죽어 대가 된다고 한다. 충정공이 순절한 자리에 싹터던 대도 바로 세넛대 청죽이었다.